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반복적 동물 이미지를 통한 도식적  
회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경 원

반복적 동물 이미지를 통한 도식적  
회화 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경 원

# 인 준 서

김경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의 2018년도 석사학위 청구 전 ‘A Repetitive Landscape’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동물 이미지를 반복하고 도식화 시키며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내용과 형식적 측면을 분석 및 서술한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대량생산, 소비, 가공되는 동물들 중 우유와 달걀을 생산하는 젖소와 닭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인간들의 많은 수요에 의해 우유, 치즈, 닭 가슴살, 고기, 통조림 등 가공, 유통된다. 획일적 시스템에 의해 생산 및 소비되는 현실 속에서 본인은 작품을 통해 주체성 있는 동물로의 환원을 추구하고자 한다.

대량생산 구조 속 비좁은 케이지와 제한적 공간에서 자유도 없이 키워지는 동물의 삶은 가혹하다. 그들은 살아 있지만 주체적이지 못하며, 존재감이 없는 생명체로 키워지고 있다.

본인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량생산 시스템(농장)에 있는 동물에 집중한다. 동물들을 나의 조형어법으로 화면에 구성시키고 새롭게 의미 부여하고 도식적 기호로 만들어 표현을 한다. 프린트나 사진이 아닌 그리기 방식을 통하여 이들에게 개체의 차이를 부여하고자 한다.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이들은 살아있지만 존재감 없이 획일적으로 키워진다. 본인은 같은 크기와 모양의 닭과 젖소 이미지를 화면 위에서 수없이 겹치고 반복시켜 하트나 별 등의 도식적 형상을 만든다. 관객은 작품을 직면할 때 도식적 형상(별, 하트 등)을 먼저 보고 더 가까이 다가서면 그 구성은 별, 하트와 관계성이 적어 보이는 닭과 젖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이는 일차적 고정관념에서의 탈피와 함께 다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3
1) 대량생산과 소비 구조 속 동물의 의미 .....	3
2) 반복적 동물 이미지의 형성배경 .....	5
2. 작품의 형식적 전개 .....	7
1) 동물 이미지의 반복과 패턴화 .....	7
2) 동물 이미지 조합을 통한 도식적 표현 .....	10
3) 레이저커팅 기법을 통한 반복성 표현 .....	13
III. 작품분석 .....	15
IV. 결론 .....	29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Superstar> Acrylic on canvas, 97×97cm, 2017
- [작품 2] <Happiness> Acrylic on canvas, 72.6×60.6cm, 2018
- [작품 3] <Blue Love> Acrylic & oil on canvas, 72.7×90.9cm, 2017
- [작품 4] <Overlapping Waves> Acrylic & oil on canvas,  
60.6×72.6cm, 2017
- [작품 5] <Re-production> Acrylic & oil on canvas, 72.7×90.9cm, 2017
- [작품 6] <Break time> Acrylic on canvas, 80.3×116.8cm, 2018
- [작품 7] <Overlapping chicken> Acrylic on steel, 29.5×28×10cm, 2018
- [작품 8] <Cycle Chickens> Acrylic on canvas, 53×45cm, 2018
- [작품 9] <Cycle> Acrylic on steel, 65×65×10cm, 2018
- [작품 10] <Cycle cycle> Acrylic on canvas, acrylic on steel,  
145×112cm, 100×100cm , 65×65cm 2018
- [작품 11] <Flying Chickens 2> Installation view, Acrylic on steel,  
80×80×250cm, 2018

## I. 서론

대량생산 체제에서 달걀과 우유를 생산하는 닭과 젖소는 가공 유통되는 동물이다. 과거 인간은 소수의 가축을 키우고 자연적으로 닭이 낳은 달걀과 젖소를 통해 우유를 섭취하였다. 산업의 발달은 그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폐쇄적이고 비좁은 공장구조의 사육환경을 만들었다.

일반적인 젖소는 홀스타인종으로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이다. 평균 한 마리당 1년에 5000kg~10000kg이 넘는 우유를 생산한다. 포유류인 젖소는 임신 후 우유 생산의 목적만을 위하여 수많은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생을 마감한다.

닭의 현실은 동물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고기와 달걀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이며 모든 동물들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도살되는 동물로 한국에서만 연간 10억 마리 이상이 도축된다.

과거 한국에서 닭은 아침을 알리는 동물로 12지 중 10번째 동물이자 유일한 새였다. 예부터 길조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왔고, 흔적은 고대 신화, 선조들의 그림, 그리고 옛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을 알린 건 하얀 닭이었고 혁거세의 부인 알영 부인은 닭의 모습을 한 용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신라가 국명이 정해지기 전까지 '계림(鷄林)'이라고 불린 것은 설화의 영향이 크다.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을 준비할 때 닭의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었다. 닭의 벼슬이 관직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닭은 치킨, 백숙 등 먹거리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게 되었다.<sup>1)</sup>

예전에 동물을 자식같이 키운다는 말은 먼 이야기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 혁명 이후, 대량생산 시스템은 더 세분화되고 정교

1) 천진기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p.167

해 졌다. 예를 들면 닭의 경우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닭 가슴살, 닭 모래집, 닭다리 등 닭의 부위를 따로 가공하며 특히 닭 가슴살의 경우 웰빙의 유행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치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유행처럼 치킨과 맥주를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본인은 인간과 밀접하고 가공, 유통되는 동물 중 닭과 젓소에 집중하였다. 대량생산 구조에 있는 닭과 젓소는 농장 안에서 살아서 존재하지만 존재감이 확실히 키워지며 각자의 주체성도 가질 수 없었다. 본인이 그리는 닭은 레그혼(Leghorn)으로 이탈리아 원산의 산란용 닭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닭의 품종이다. 젓소는 홀스타인(Holstein) 종으로 네덜란드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젓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을 그리고 있다. 본론의 내용적 전개에서 레그혼의 닭과 홀스타인종의 젓소가 대량생산, 소비되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동물들은 인공적으로 과도한 임신을 통해 키워진다. 인간은 좋은 음식과 좋은 품질을 추구하지만 정작 동물들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형식적 전개에서는 동물 이미지를 반복시키고 패턴화시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서술한다. 동물이미지의 반복에서 작업의 스케치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키워지고 있는 대량생산 체제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그 위에 본인이 물감으로 칠하는 과정이 동물에게 개체의 특성을 부여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다. 강철을 이용하여 입체 작업을 하고, 평면 캔버스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전시장 공간에 닭 입체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식화된 동물 이미지의 반복적 회화 표현 방법을 통하여 수많은 동물 이미지를 수작업으로 그린 효과와 회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1) 대량생산과 소비 구조 속 동물의 의미



[도판 1] Nownews기사



[도판 2] Animalmate 발췌

대량생산이라 함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sup>2)</sup>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비용을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물 얻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젖소의 현실은 어린 송아지 때부터 좁은 우리에 갇혀 젖소로 성장하는데 1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 주사와 좁은 축사는 젖소를 빠르게 성장하게 한다. 이후 인공 임신에 시켜 임신 기간인 9개월 동안 우유를 생산한다. 과도한 생산을 통해 얻은 우유는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분유 등으로 가공되어 상품화된다.

---

2) 두산백과



[도판 3]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도판 4] 자연 순환유기축산-입문

대한민국의 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공장 형 시스템에서 대량생산되어 있다. 동물들은 비좁은 사육장과 자율성 없는 환경에서 키워진다. 닭은 수컷이 없이도 알을 부하할 수 있다. 닭이 키워지는 현실은 실로 참혹하다. 병아리 때 좁은 곳에서 성장한 스트레스로 서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 있기에 마취제 없이 부리를 자른다. 닭의 평균 수명은 8년 (야생의 닭 20년) 정도이지만 온전히 고기로 쓰이는 닭은 30일, 알을 낳는 닭은 2-3년 살 수 있다. 육계는 움직이기 힘든 아파트형 우리에 가두고 사료도 살찌는 사료를 먹인다. 산란계는 인공조명을 통해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24시간 내내 알을 낳고 그 수는 일 년에 150개 이상이다. 대량생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기계적 시스템이다.

닭은 전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sup>3)</sup> 일부 과학자들은 닭이 사라지면 인간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고 예측한다. 닭고기 양의 무게만큼 소와 돼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료와 토지를 필요로 하고 이들이 배출하는 메탄량의 증가는 환경적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같은 고기의 무게라면 소고기가 닭고기 보다 온실가스를 4배 더 배출한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 닭고기나 달걀에는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는 라이신과 트레오닌 같

<sup>3)</sup>출처 <https://blog.naver.com/vitajk/220376258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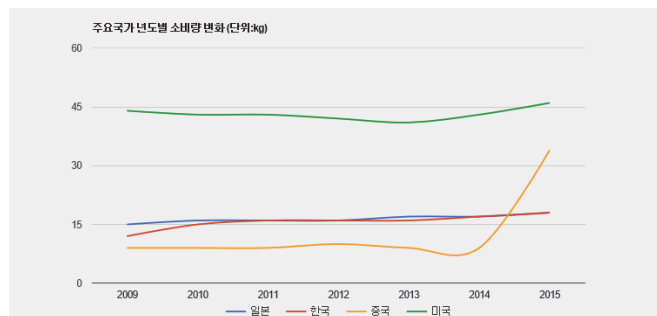
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 닭이 사라지면 가난한 나라부터 아미노산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지금과 같은 대량 사육 방식을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

## 2) 반복적 동물 이미지의 형성배경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변화** ◆단위:kg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총합
1970년	1.2	2.6	1.4	5.2
1980년	2.6	6.3	2.4	11.3
1990년	4.1	11.8	4.0	19.9
2000년	8.5	16.5	6.9	31.9
2010년	8.8	19.3	10.7	38.8
2016년	11.6	24.1	13.8	49.5

[도판 5] 농림축산 식품부



[도판 6] <사단법인 한국 육계협회 통계자료>

[도판 5] 와 [도판 6]과 같이 현재 육류의 소비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의 증가는 그들을 더욱 치밀한 시스템에 갇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부위별로(닭 가슴, 닭다리, 닭 모래집 등등) 가공되고 우유, 치즈, 고기 등으로 생산된다.

산업혁명은 우리의 집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형태가 있었다면 현재는 초고층의 아파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아파트의 구조는 건설사와 평수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구조를 띄고 있어 아파트를 ‘닭장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닭의 사육장의 현실은 멀리 보이는 아파트처럼 뻥뻥하고 규격적인 사육장에서 키워진다. 본인은 이 현상의 표현 방법을 반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들뢰즈의 반복의 개념에 대하여 서술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차이와 반복>에서 “절대적으로 똑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는 어떤 동일한 요소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반복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산적 요소들, 이 반복되는 대상들과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것들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반복하는 비밀스러운 주체, 반복의 진정한 주체이다. 우리는 반복을 대명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반복의 자기(自己)를 발견해야 하며, 스스로 반복하는 것 안에서 독특성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반복자 없이는 반복이란 없기 때문이며, 반복하는 영혼 없이는 반복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라 말한다. 재현이 반복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 결과에는 잠정적 주체자인 반복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말한다.

본인 작품에서 보이는 하트나 별과 같은 도식적 형상은 닭과 젓소가 반복적으로 모여 도상으로 재현되고, 그 과정에는 반복자인 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닭과 젓소를 겹쳐서 스케치하고 한 마리씩 손으로 회화성을 부여한 동물은 미세한 차이가 나게 된다. 완성된 동물은 모두 다 다른 개체이며 이 개체들은 별과 하트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형태를 이루기 위해 자리하고 있게 된다. 동물 이미지가 반복되어 완성된 별과 하트는 한눈에 닭과 젓소로 보이기 이전에 하트나 별과 같은 도식적 이미지로 먼저 보이게 된다.

본인은 반복적 표현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겹겹이 중첩시켜 유기성과 존재감을 부여하였다. 같은 방향과 모양의 동물들을 똑같이 스케치하고 똑같은 색으로 채색한다. 본인이 기계처럼 똑같이 그려 표현하고 있으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같을 수 없고 아무리 정교해도 기계적 환원은 불가능하다.

---

4)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73

## 2. 작품의 형식적 전개

### 1) 동물 이미지의 반복과 패턴화

본인은 특정 동물(닭, 젓소)을 같은 형태, 같은 방향으로 되풀이한다. 반복 (Repetition)을 사전적 정의는 같은 일을 되풀이함을 말한다.<sup>5)</sup> 들뢰즈에게 반복은 같은 것의 재생산이 아니라 차이의 역능이다. 또한 반복은 규칙성이 정렬되는 과정이 아니라, 특이성들이 응결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과정이라 말한다.<sup>6)</sup> 본인의 반복은 사전적 정의와 같이 이미지를 그리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만 반복한 동물 이미지의 조합은 도식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동물 이미지의 정렬이 아니라 동물 이미지의 조합이 다른 도식으로 보여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들뢰즈는 “반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것도 등가적인 것도 갖지 않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과 관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이 반복은 그 자체로 아마 더욱 비밀스러운 어떤 떨림의 반향일 것이다. 그것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단독자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의 방향이다.”<sup>7)</sup>라 말한다. 본인은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이나 사진을 인쇄하는 것이 아닌 수작업으로 완성하는데 이는 반복하는 행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케치를 대량생산의 체제라 정하고 반복하여 닭과 젓소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완성한다. 하나의 완성된 동물은 그전에 그려진 동물과 같을 수 없고 그렇게 모여 완성된 이미지는 별이나 하트와 같은 도식적 형상을 갖게 되지만 별과 하트가 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동물들이 주체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이루고 있는 도식적 형태가 되게 된다.

5) 표준국어 대사전

6) 아르노 빌라니(Arnaud Villani), 로베르 싸소(Robert Sasso) 「들뢰즈의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p.152

7)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24



[도판 7] Andy Warhol <Red Cow>

다.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은 노란색 바탕에 레드소를 규칙적으로 떨어뜨려 배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젓소를 겹치고 반복시켜 유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앤디워홀의 소는 레드소의 반복적 형상이 잘 보이지만 본인은 젓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별 이나 하트, 파도 등 도식적 형태를 먼저 보이게 했다. 그 후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 도식과 관계성이 적은 닭과 젓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앤디 워홀은 미국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가장 부유한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고 전통을 확립한다는 것이라 설



[도판 8] Andy Warhol, 캠벨 스프 캔

8) 클라우스 호네프 「팝 아트」 마로니에북스, 2003, p.88

패턴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이라 쓰여 있다. 본인은 닭과 젓소를 수없이 겹쳐 도식적 형태를 만든 뒤 도식적 패턴을 조합하여 이미지를 완성한다.(작품 4참조) 보통 패턴으로 읽힐 때 일정 간격을 두고 규칙적 배치를 하면 [도판 7]과 [도판 8]과 같이 더 쉽게 패턴을 표현 할 수 있을 것이

명했다. 당신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코카콜라를 마시며 대통령도 콜라를 마시고 리즈 테일러도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것을 안다. 워홀은 콜라는 콜라이며 더 많은 돈이 있더라도 더 나은 것을 살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8) 이미지의 인쇄적 반복을 통하여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이상시 되는 이미지를 산업 생산물로 소비시키며 대중문화를 철저히 이용 활용하였다면, 본인의 작업은 이와 다르게 가장 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다. 같은 이미지의 드로잉조차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는 대량생산의 방식에 위배되며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미



[도판 8] 김동유, Marilyn Monroe(John F.Kennedy)

지를 반복하지만 이들을 겹치고 결합하여 도식적 이미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미지는 연결되어 유기적 관계성을 갖게 된다. 위홀이 캠벨수프나 마릴린 먼로 이미지를 상업화 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본인은 특정 동물로 보이는 이미지의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닭, 젓소)로 보이는 일차원적 대상에서 탈피하여 본인의 작품을 일정 간격 떨어져 보면 본인이 만든 도식적 형태를 볼 수 있게 된다.

김동유(1965~)의 마릴린 먼로 작품은 존 F 케네디의 얼굴을 픽셀로 모자이크 하여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완성한 작품이다. 이중 이미지(dual image)라는 이미지의 반전을 통하여 본래의 이미지 ‘덧없음’을 강조한다. 대중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릴린 먼로나 존 F 케네디는 본적이 없어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이며 이는 실체가 아니며 대중들은 대상을 인지하고 소비(잇는다)한다 말한다. 본인은 동물(닭과 젓소)을 이미지를 수없이 반복 시켜 별이나 하트, 파도 등의 이미지로 변화 시킨다. 이는 이미지의 이중성을 가지는 김동유의 작품과 닮아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지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그림 안에서 영원성을 주장한 김동유의 작품과는 달리 본인의 작품 속 동물은 반복



[도판 9] 김동유 Marilyn Monroe(John F.Kennedy)확대 부분

과 조합을 통해 개체의 특성을 갖게 되며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은 그리기 방식을 택하는 점이다. 픽셀과 같은 개념으로 존F 캐네디의 얼굴을 점으로 사용하여 마릴린 먼로를 완성하였다면 본인은 닭의 붉은 벼슬과 젖소의 검정 얼룩을 점과 면으로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앤디 워홀이 대중문화를 철저히 이용하고 인쇄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면 김동유와 본인은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리기 방식을 택하였다. 김동유의 그리기 방식은 이미지의 덧없음을 강조하였다면 본인의 반복적 그리기 방식은 주체적 존재로서의 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김동유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존F캐네디를 패턴화 시켜 마릴린 먼로를 완성하였다면 본인은 동물이미지와 도식적 패턴을 반복시켜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 2) 동물 이미지 조합을 통한 도식적 표현

사전적 의미의 9)도식이란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낸 그림, 또는 양식이라 한다. 본인은 특정 동물을 일정 간격으로 겹쳐 그림으로써 별과 하트, 꽃과 같은 패턴을 만든다. 만들어진 패턴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작품 첫 드로잉 제작 시점에 실제 닭이나 젖소를 본 경험이 없었다. 인터넷에서 있는 닭과 젖소를 보고 캔버스에 드로잉 하고 채색하여 하나의 닭과 젖소를 완성했다. 다시 이 드로잉을 컴퓨터로 옮겨 데이터화 시키고 이들을 복제하여 스케치를 완성하였다 그 스케치를 다시 인쇄하고 먹지를 대고 다시 캔버스에 스케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손으로 그리는 방식 중 가장 기계적 행위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스케치된 닭과 젖

---

9) 표준국어 대사전

소의 가장 특징적 부분인 붉은 벼슬과 젖소의 얼룩에 미디엄을 섞어 부피감을 주고 특징이 부각될 수 있도록 채색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 중 별, 하트, 동그라미 등의 기호적 도식 있다. 하트, 별 과 같은 기호는 인간이 만든 도식적 기호이다. 실체는 있지만 뚜렷한 형상이 없는 존재를 인간들이 일정한 틀에 맞는 기호로 만든 것이다. 본인은 이를 닭과 젖소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화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가 그의 초기 흑색 회화에 대하여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언명의 예기치 않았던 환원성은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표면상 무의미한 형태들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 내용으로 몰고 간다. 우리는 그림에서 재현된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선들은 우리의 주의를 너무나 전적으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검은 줄무늬는 일종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명백하게 보는 것을 ‘무엇’ 이라고 결정하려고 노력할 때, 이 ‘무엇’ 은 필연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활성의 본질적인 자료 이상의 무엇인가가 된다. 그리하여 회화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종류의 기호로 작동한다.<sup>10)</sup> 본인은 닭의 붉은 벼슬과 젖소의 검정 얼룩을 반복하여 이미지를 완성한다. 완성된 이미지는 기호적 형태와 비기호적 형태로 나뉜다. 비기호적 형태는 본인이 특정 이미지를 보고 만든 도식적 이미지를 다시 반복하여 큰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화면에서 닭 이미지를 반복 시켜 맨드라미 꽃 형상을 만든다. 도식화된 맨드라미 형상의 닭을 중첩시켜 화면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고지도나 산에 꽃이 핀 이미지 또는 만리장성 등 관람객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 이미지는 정해진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에 의하여 ‘무엇이다’ 가 아닌 ‘무엇 같다’ 라 읽힌다.

도식적 동물 이미지를 만드는 이유는 개체의 존재감이 있는 동물이지만 공

---

10) 「새로운 미술사를 위한 비평용어 31」 로버트 S넬슨 ,리처드 시프 엮음<기호> 2006 아트북스 p65

장 시스템 안에서는 개체의 의미도 존재도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예를 들면 군인과 같은 형상이다.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는 순간 한 명 한명의 특징은 중요치 않다. 군인들이 모여 군대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 집단의 중요성이 커진다. 본인은 대량생산 구조에서 의미 없어진 개체를 수작업으로 반복하여 미묘한 변화를 주고 그 차이를 통하여 동물에게 개체성 부여하고자 한다. 질 들뢰즈는 “반복은 절대적으로 어떤 반복들에 의존하고 반복의 어떤 양태나 유형들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계, 그 ‘차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치되어 있다. 즉 그것은 더 이상 첫 번과 그다음 번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것과 반복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반복의 유형 등 사이에서 성립한다. 그것은 곧 반복 그 자체이다. 게다가 전체에 대해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은 반복에서 벗어나는 어떤 첫 번에 부여된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무한한 횟수로 일어나는 유형의 반복에 대립하는 어떤 유형의 반복에 부여된 자격이다.”<sup>11)</sup> 본인 작품의 하트와 별, 파도와 같은 도식적 형상은 동물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상이지만 개체의 특성을 부여하고자 수작업을 하였다. 같은 스케치 위에 그려진 동물 이미지는 채색을 거치며 처음에 그려진 이미지와 다음에 그려진 이미지는 미묘한 차이를 갖게 되며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더 나은 이미지를 완성하게 된다. 반복을 통해 완성된 동물 이미지는 각자가 주체적으로 도식적 형상을 위해 자리하게 된다.

11)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615

들뢰즈에게 반복은 차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반복을 동일성의 매커니즘으로 이해하는데 들뢰즈는 반복을 일반의 논리가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기제로 본다. 예를 들면 동일한 악보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결코 같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반복을 통해 다른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연주자가 처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연주자의 강도가 느껴지는 것이 이 때문이라 말한다. 따라서 들뢰즈의 반복은 강도의 자각을 통한 차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 3) 강철을 통한 동물 이미지의 표현 확장



[도판 10] 데이비드 걸스타인(David Gerstein)

본인은 동물 이미지의 평면에서 회화성에서 나아 입체 작업으로 확장하였다. 캔버스에 그린 닭 그림을 디지털 화면으로 옮기고, 그 드로잉을 레이저 재단을 통하여 라인 형태의 강철로 된 닭 모양을 대량 제작한다. 데이비드 걸스타인(David Gerstein 1944~)은 종이에 그린 드로잉을 컴퓨터로 작업해 데이

터 시킨 뒤 강철로 레이저 커팅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본인도 캔버스에 그린 동물을 디지털로 다시 작업하고 데이터화 시킨 뒤 레이저 커팅이라는 정교한 기계를 통하여 제작한다. 본인의 작업은 데이비드 걸스타인과 그리기 방식도 겹치는데 그는 레이저 커팅 된 철 위에 실크스크린이나 채색 과정을 통하여 재질감을 주는 회화성을 준다. 본인도 철 위에 아크릴 물감에 부피감을 주는 미디엄을 섞어 채색하여 회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걸스타인은 2차원적 화면과 3차원의 입체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얇은 판을 재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인은 객체의 존재감이 없는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 차갑고 무거운 철을 이용하여 얇은 선모양의 닭을 0.3mm의 얇은 판 형태로 제작하였다. 걸스타인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대인들의 소소한 모습을 닮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작업을 보여주었다면 본인은 대량생산 시스템에 놓인 닭의 형상을 레이저 커팅을 통하여 기계적 획일화 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키워지는 공장 시스템의 현실을 재현하였다. 농장 시스템에 존재하는 닭은 실체는

있지만 존재감 없이 키워진다. 이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차가운 철을 얇은 판 형태로 제작하였다. 평면에서는 몸통을 모두 칠하여 보여주었다면 입체 조각에서는 몸통을 뚫어 라인 형태로만 커팅 하였다. 이는 존재감 없는 그들의 현실이며 공허한 그들의 마음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런 현실을 물감과 수작업을 통하여 반복적 채색을 하고 개체의 존재성을 주고자 하였다. 철 형태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이며 그 위에 물감을 덧입혀 개체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평면에서 네모난 캔버스가 그들의 사육장과 같은 집이라면 개체로 제작된 입체 닭은 공간에 따라 다른 곳에 있게 되고 평면 보다 자율성을 갖게 된다. 설치 작업에서는 개체 개체를 공중에 띄워 새가 날아다는 듯 자유로운 자율성을 부여 시키고자 한다.

### Ⅲ. 작품분석



[작품 1] <Superstar> Acrylic on canvas,  
97×97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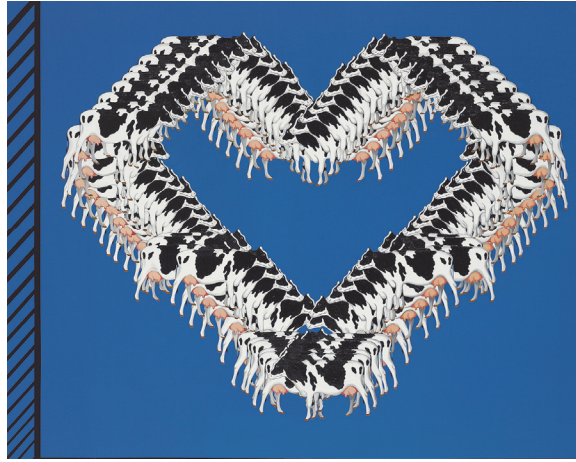
[작품 1]은 닭의 입장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닭을 겹쳐 반복하여 별 형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별과 하트는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별 모양은 사람들이 만든 도식적 형태이며, 별이 노란색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관념이다. 실제의 별은 하얀 빛에 더 가깝다. 본인은 관념 속의 노란색을 정말 노란색으로 캔버스에 채색하여 직접적인 재현을 하고 그 위에 먹지를 대고 스케치하였다. 이 복제된 닭은 모두 같은 색상으로 칠하여 완성한다. 반복을 통해 완성된 닭은 [Superstar]라는 제목처럼 이상화된 존재가 된다.

별의 의미는 다중적 이다. 하늘의 별과 계급의 별이 있다. 닭에게는 등급의 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서 닭을 좋은 육질, 좋은 크기를 선별하여 등급을 나눈다. 본인은 대량 생산에서 좋은 고기라는 인식의 전환시키고자 별의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슈퍼스타라는 이상으로 시각화 시켰다.

본인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있는 닭을, 닭의 특징인 붉은 벼슬을 점으로 하여 별의 형태를 만들었다. 작품 제작을 위한 스케치는 최초로 디지털 화면에서 진행된다. 디지털에서 별의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닭의 벼슬을 점으로 놓고 연결하여 닭으로 모인 별 형상을 만든다. 그 후 진행하고 자하는 캔버스 크기로 대형인쇄를 하고 그 아래 먹지를 대고 스케치를 완성한다. 이는 존재감이 없는 그들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들을 여러 번 덧입히고 닭의 특징인 붉은 벼슬은 미디엄을 섞어 부피감을 주어 부각 시킨다. 그림으로 그려지기 이전의 닭은 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반복적 행동을 통해 완성된 닭은 개체의 특성이 강조되고 유기적 존재로 연결되며, 그 별은 더 우월한 형태로 해석 되게 된다. 어떤 하나의 별이 집단에서 이탈하면 별의 형상은 깨어지기 때문에 닭은 자신이 위치한 위치를 고수한다. 어떤 한 마리가 위치 변동을 하면 모두 같이 이동을 해야만 하는 유기적으로 밀접한 연결 고리를 갖게 된다.



[작품 2] <Happiness> Acrylic on canvas, 72.6×60.6cm, 2018



[작품 3] <Blue Love> Acrylic & oil on canvas, 72.7×90.9cm, 2017

[작품 2]와[작품 3]은 닭과 젓소를 겹치고 반복시켜 만든 하트 형상이다. 세로축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었을 때 마주 보는 구조를 가진다. 하트 형상은 실체는 있지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인간들이 정한 도식이다. 하트 형상은 다양한 유래를 가지고 있지만 (심장, 엉덩이, 사과 등등) 그 형상은 모두 같다. 이 형상은 현재 보편화된 사랑의 도식적 형태이다.

본인은 [작품 2]의 배경을 마젠타 핑크를 사용하여 빨강보다는 차가운 붉은 색을 사용하였고, 위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밝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했다. 대량 생산 체제의 생성과 소멸의 구조를 색으로 표현하여 생성을 진한 마젠타 핑크로 점차 소멸되는 소멸성을 밝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은 같은 크기 같은 방향의 닭을 반복하여 완성 시켰다면, [작품 2]에서는 같은 크기이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는 닭의 형태를 하트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하트 형상의 방향성은 대칭과 대립이라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칭의 미술사적 의미는 상하 또는 좌우로 동일한 형상의 상사(相似) 형의 한 짝이라는 뜻이다. 중심점 또는 중심축을 둘러싼 여러 단위, 여러 부분이 양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물체의 구조 또는 배치를 말한다. 대칭의 효과는 안정, 장중, 정지, 신비한 느낌을 준다. 대립은 헤겔의 정의에서 “대립이란 동일성과 상이성의 통일이라 말한다.”<sup>12)</sup>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의 삶과 대량생산에서 인간의 수요에 의해 농장에서 키워져야 하는 동물의 현실은 대립적이다.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있는 대칭적 모습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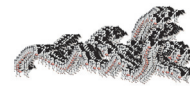
[작품 3]은 [작품 2] 이전에 그렸던 작품으로서 틀 안에 갇힌 젓소를 세로축을 중심으로 대칭되도록 표현한 작업이다. 젓소의 특징인 검정 얼룩을 선으로 하여 하트 형상을 표현하였다. [Blue Love]라는 제목처럼 따뜻한 상황과 반대적 상황인 차가운 상황을 표현했다. 젓소가 자유롭게 있던 상황과는 반대로 농장에 갇힌 상황을 의미한다. 틀에 갇힌 구조 안에 있는 젓소의 형상은 완전한 하트의 형상이 아닌 디지털 화면에서 픽셀을 확대하였을 때처럼 깨진 듯 이어진 화면처럼 보인다. 대량생산의 구조 안에 갇힌 젓소의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닭과 젓소를 하트의 반을 완성하고 세로축을 중심으로 마주 보도록 대칭과 대립의 구도를 만들었다. 하트 형상을 도식화시킴으로써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닭과 젓소의 이미지 이전에 하트라는 도식적 이미지로 보이도록 작업하였다.

---

12) 「헤겔[대논리학]본질편-1편 자기자체내의 반성으로서의 본질」 벽호, 1997, p.75



[작품 4] <Overlapping Waves> Acrylic & oil on canvas,  
60.6×72.6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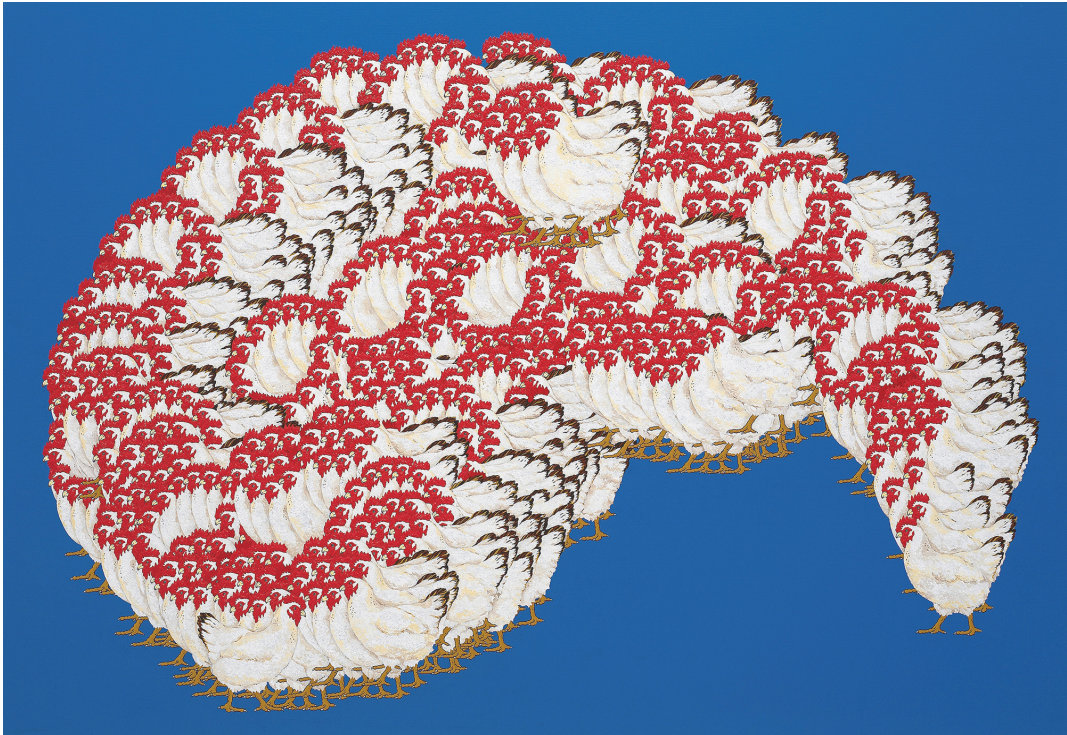
도판 11

본인은 자연에 존재하는 파도 형상을 젓소를 수업이 겹치고 조합하여 [도판 11]과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 이 형상을 다시 반복시키고 결합하여 [작품 5]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다른 작업과의 차이점은 농담 조절과 겹침의 표현, 도식화 형상의 크기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자연을 도식화한 작품으로 자연스러움의 회화적 표현으로 농담 조절과 크기 변화를 주었다. [작품 4]는 자연의 파도의 형상을 본인의 관념적 형상으로 해석하고 도식화하여 [도판 11]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자연의 정지된 형태를 본인이 패턴으로 재해석하고 도식화 시켰다. 이는 동물들은 원래 자연에서 존재하였던 주체적 존재였지만 지금은 공장(농장)이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 구조는 자유롭게 살아가던 동물에게 좁은 사육장과 규제를 주었다. [작품3]과 다른 점은 [작품 4]의 형상은 관객의 심상에 따라 파도로 보일 수 있고 산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다. 각자의 경험에 의하여 ‘~(파도) 같다’ 라고 말하게 된다.



[작품 5] <Re-production> Acrylic & oil on canvas,  
90.9×72.7cm, 2017

본인이 맨드라미 꽃을 보고 닭의 입장에서 오른쪽을 보고 있는 닭 이미지를 반복하여 도판 11과 같은 방식의 패턴을 완성하였다. 이 패턴을 다시 수없이 중첩시켜 [작품 5]와 같은 화면을 완성했다. [작품 4]와 [작품 5]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을 가진 자연적 형태를 본인의 관념적 형상으로 표현 부분이다. [작품 1]과 [작품 2]는 도형과 기호 형상을 표현하였다면 [작품 4]와 [작품 5]는 과도와 꽃 형상이라는 자연물을 도식화 시켰다. 이는 [작품 1]과 [작품 2]보다 더 본인의 주관적 형상이며 불규칙한 형상이다. 본인이 만든 맨드라미 꽃 도식을 다시 반복시키면 [작품 5]와 같은 화면이 완성된다. 완성된 작품은 관객들이 “~같다.” 라고 보며,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이는 본인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며, 형상 자체에도 자율성을 갖게 되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만리장성이나 고지도, 눈 덮인 산에 꽃이 핀 형상 등 심상에 따라 다르게 읽는다. 이는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작품 6] <Break time> Acrylic on canvas, 80.3×116.8cm, 2018

[작품 6]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바탕에 닭의 입장에서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는 닭과 반대 방향인 왼쪽을 바라보는 닭 한 마리를 숨겨 놓은 작품이다. [작품 5]가 획일 된 방향으로 그린 동물 위에 미세한 회화적 차이로 개체의 차이를 부여하였다면 [작품 6]은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닭을 조합하여 적극적 차이를 부여한다. 직접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개체 하나를 제시하여 개체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였다.

최초 작업은 [도판 11]과 같이 닭을 겹치고 조합하여 두 가지 패턴을 만든 뒤 그 도식을 반복시켜 태극을 형상화하였다. 태극은 음양사상과 결합하여 만물을 생성시키는 우주의 근원으로 중시된 개념이다. 그중 태극의 윗부분은 양의 기운으로 태양(하늘)을 상징하는데 아침을 알리는 닭과 붉은 벼슬이 양의

기운으로 태극 윗부분 형상과 닮아있다. 태극의 붉은 기운을 강조하기 위하여 닭의 벼슬은 미디엄을 섞어 볼륨감 있도록 특징을 살려 표현했다. 붉은 벼슬은 닭의 가장 특징적 요소이고 이 요소는 캔버스 위에서 점이 되고 점이 모여 태극 형상을 만든다. 본인은 닭 이미지를 조합하여 태극의 윗부분 형상을 재현하였지만 부분의 형상만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소통이 불가능했고, 관객의 경험에 의해 쉽표, 심장, 날개 등 각자 다르게 바라보았다. 이는 Break Time이라는 제목처럼 본인이 만든 도식적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품 7] <Overlapping chicken> Acrylic on steel,  
29.5×28×10cm, 2018

[작품 7]은 3mm의 철판에 라인으로 형상화된 닭을 레이저 재단을 한 뒤 용접을 하여 5개를 점층적으로 붙이고 그 위에 아크릴 채색을 한 작품이다. 대량 생산 시스템과 정교한 기계적 반복 표현을 위하여 디지털 커팅을 선택했다. 최초 작업은 캔버스에 드로잉 한 닭을 디지털 화면으로 옮기고 데이터화시켜 디지털 커팅 방식을 택했다. 그 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손으로 그려 회화적 요소와 개체의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입체 작업이 평면 회화와 크게 다른 점은 몸통이 비어져있는 닭을 표현 한 것이다. 대량생산에서 유통 과정에 키워진 닭은 어떤 감정이나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도 집단 안에서 융화가 잘 되는 사람을 원한다. 어떤 생각이 나 감정보다는 안정적 일처리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이런 공허함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통을 뚫어 표현하였다. 3mm의 라인으로 재단되어 가볍게 보이지만 철판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사용하여 닭이 공장 시스템에 살아가는 공허함의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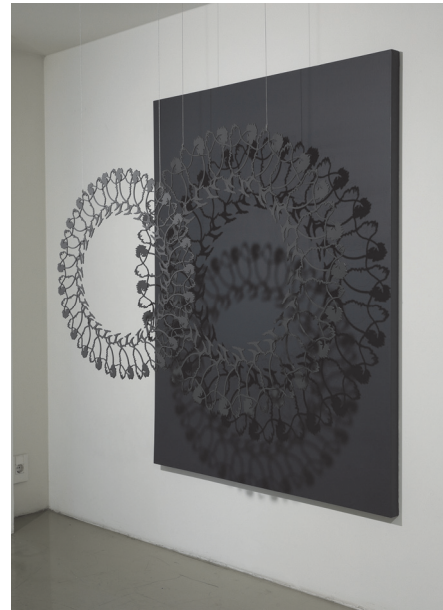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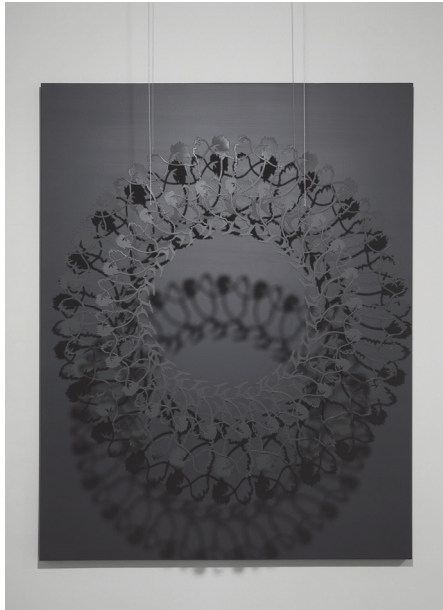
[작품 8] <Cycle Chickens>  
acrylic on canvas, 53×45cm  
2018

[작품 9]는 65×65cm의 정사각형의 철 프레임 위에 강철로 커팅 된 닭을 원형 구조로 용접하여 만든 작품이다. 용접된 원형 구조 닭과 정사각형 프레임은 2cm로 떨어져 붙어 있다. 이 작품은 [작품 8]의 캔버스 화면에 그린 작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본인은 순환(Cycle)이라는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원형의 구조와 대량생산구조 속 동물의 삶이 닮아 있다고 여기고 평면에서 입체 나아가 설치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작품 9]는 강철을 라인 형태의 닭 모양으로 디지털 커팅 하여 대량생산 구조 속 그들의 공허함을 나타내고 닭 모양 철 프레임을 하나씩 아르곤 용접으로 연결하여 원형 형태로 붙이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용접은 동물들을 서로 유기적 관계로 만드는 과정이며 채색으로 완성된 원형은 순환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 단단한 구조로 붙어 있게 된다. 2cm 떨어져 붙여진 원형의 닭은 빛에 의하여 흰 프레임 위에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조명에 의해 회색 톤의 또 다른 복제물이 생성된다. 이 그림자는 앞에 원형 구조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허상이다.



[작품 9] <Cycle> acrylic on steel, 65×65×10cm 2018. 정면과 측면



[작품 10] <Cycle cycle> Acrylic on canvas, Acrylic on steel, 145×112cm,  
100×100cm, 65×65cm, 2018

[작품 10]은 145x112cm의 진한 회색 캔버스 위에 왼쪽으로 보고 있는 닭이 원형으로 연필로 스케치 되어있다. 그 앞에 100x100cm 왼쪽으로 보고 있는 철로 커팅 된 닭이 원형 구조로 용접되어 있다. 결합된 원형구조는 천장에 매달려 있다. 위 전시에서는 가장 뒤쪽 캔버스와 큰 원형 구조의 간격을 50cm 띄워 전시했다. 맨 앞은 65x65cm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닭을 용접으로 결합하여 동그라미 형상을 만들었다. 이 구조도 천장에 설치하고 큰 원과의 간격을 다시 80cm 띄웠다. 이 작품을 비추는 조명으로 인해 다시 두 개의 그림자가 형성된다. [작품 10]의 큰 특징은 개체의 특성을 절제한 부분이다. 개체의 특성보다 무리를 강조하고자 서로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Cycle Cycle>라는 제목처럼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형 패턴은 자유롭게 공중에 떠 있지만 줄이라는 제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인은 이

작품을 그리기 방식이 아닌 피그먼트를 도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감정을 절제하는 수단으로 뿌리기 방식을 택하고 공허함 표현을 위한 감정의 배제를 위해 저채도의 어두운색을 사용 하였다.



[작품 11] <Flying Chickens 2> Installation view,  
Acrylic on steel, 80×80×250cm, 2018

[작품 11]는 모빌 형태로 철로 된 닭 모형이 공중에 매달린 구조의 설치 작업이다. 모빌이란 움직이는 조각이나 공예품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쇠조각이나 나뭇조각 따위를 가느다란 철사, 실 따위에 매달아 균형을 이루게 한 것으로, 공기의 진동에도 평형을 유지하며 움직인다. 1932년에 미국의 조각가 콜더의 작품이 오브제 모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사용되었다.<sup>13)</sup>

[작품 11]는 80×80cm의 정사각형 철판에 10cm 간격으로 고리를 만들었다 그 고리에 레이저 커팅 된

철 모형 닭을 한 마리씩 와이어에 계단 형태로 매달았다. 닭의 몸의 중간에 와이어로 매달린 닭은 이전 작업보다 자율적인 움직임을 가지게 된다. 공기나 바람에 의해 회전도 하며 균형을 이룬다. 매달린 닭들은 양쪽 면을 모두 아크릴 채색을 하여 개체의 특징을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닭은 땅에서 2m50cm 떨어진 구조로 관람객들은 위로 올려다보는 구조로 설치하였다. 이는 땅이나

13) 표준국어 대사전

케이지에 살아가는 닭이라는 시선의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를 위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캔버스나 철 프레임 위가 아닌 공간의 공중에 배치하여 자율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지만 닭은 여전히 와이어라는 줄에 묶여 모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완전한 자율성도 가질 수 없었다.

## IV. 결 론

본인은 인간과 밀접하고 대량생산, 가공, 유통되는 특정 동물을 반복하여 도식적 회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 구조 속 동물들은 좁은 사육장에서 존재감 없이 키워지고 획일적 시스템에서 키워지는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본인은 대량생산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동물의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동물마다 본인만의 조형어법으로 회화적 특징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동물을 반복시켜 하트나 별 등 도식적 형태로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동물의 이미지가 보이기 전에 도식적 형태가 먼저 보이도록 구성하여 닭과 젓소라는 이미지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대량생산 시스템 중 동물의 생산 과정과 소비를 조사하며 출발한다. 여전히 젓소와 닭은 대량생산구조에서 키워지고 있으며 오히려 가공의 다양화로 닭다리 살, 닭 가슴살, 통조림, 달걀, 우유, 분유, 치즈 등 더 세밀 해지고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을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 대량 생산 속 기계화된 그들의 삶을 반복을 통하여 표현하였고, 수많은 동물 이미지를 중첩시키고 도식화 시켰다. 본인이 캔버스에 그린 동물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인쇄를 거쳐 손으로 스케치하였고, 채색도 동일 색과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기계적 재현은 불가능하였으며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본인은 일차적으로 젓소나 닭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하여 별, 하트, 동그라미, 네모 등의 기호적 표현뿐 아니라 꽃, 파

도 등의 유동적 형태도 도식적으로 패턴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유동성을 가진 자연적 형태를 반복한 작업은 관객의 경험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강철을 디지털 커팅 하여 라인으로 된 닭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회화성을 부여했고, 설치작업으로 확장시켜 평면 캔버스에서 벗어나 공간의 확장을 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량생산이라는 소비 구조 속 동물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해석하는 구조를 더 흥미롭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여 자연적 형상을 동물 이미지의 반복을 통하여 도식화시키고 회화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또한 젓소와 닭이라는 특정 동물에서 나아가 대량생산 소비구조 속 다른 동물로 확장해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ANDY WARHOL Time Capsule> 매트 위비컨, 제랄린 헉슬리 지음, 미술문화 출판, 2011

F. 헤겔 [대논리학](본질론) 벽호, 1997

<동물 무대에 오르다> 쉬레이 지음, 정주은 옮김, 시그마 북스 출판, 2011  
두산 백과

<들뢰즈 개념어 사전> 편집 아르노 빌라니 Arnaud Villani 로베르 싸소  
Robert Sasso, 신지영 옮김, 갈무리 출판, 2012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입문> 조 휴즈 지음, 서광사, 2014

<서양 미술 사전> 이은기, 강영주, 고종희, 김미정, 김정은, 홍상현 지음  
미진사 2015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 천진기 지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차이와 반복> 질 들뢰즈 지음, 김상환 옮김 (주)민음사, 2004

<팝아트> 클라우스 호네프 지음, 지향은 옮김, 마로니에북스 출판, 2003  
표준국어대사전

# ABSTRACT

A study on schematic painting expression through repeated  
animal images

- Focusing on Work -

Kim, Kyung Won

Dept. of Western Paint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describe content and form concerning a process which animal images are repeated, schematized and expressed in painting centering around artwork exhibited in 'A Repetitive Landscape' before the author of this thesis applies for master' s degree in 2018.

Dairy cattle and chicken that produce milk and egg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animals that are produced, consumed and processed in volume with closely related to dietary life. They are processed and distributed due to high demand by men in such a way as milk, cheese, chicken breast, meat and canned goods. The author of this thesis pursues restoration to animals with self-direction through artwork amid reality that animals are produced and consumed by uniform system.

Life of animals that are raised without freedom in confined cage and

space under structure of mass production is severe. Even though they are alive, they are not self-directed and raised as a living thing without presence.

The author of this thesis highlights animals under mass production system (farm) despit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e author of this thesis expresses animals with schematic symbols and new significance on screen. The author of this thesis intends to give them individual difference through painting other than print or photograph. Animals are raised uniformly without presence under mass production system. The author of this thesis makes schematic figures such as heart and star by overlapping and repeating chicken and dairy cattle images with the same size and shape countlessly. When looking at artwork, viewers see schematic figures (star, heart and so on) first and when they approach artwork more closely, they face the fact that the structure is composed of chicken and dairy cattle which seems to be little related to star and heart. This aims to induce them to break their primary stereotype and look at things from a new viewpoint.